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光州日報

www.dakajob.com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막스클럽

The Kwangju Ilbo

여수 해양관광도시 되다

2015년까지 302만평 관광·레저단지 건설

정부, 화양지구 개발사업 승인

전남 동부권의 관광·레저지도를 바꿀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25일 승인돼 다음달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여수는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중인 시점에서 사업 계획 승인으로 박람회 개최기반 가시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화양면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재경부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2004년 7월 5일 ㈜일상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주)일상은 모두 302만평의 부지에 1조 5천여억원을 투자, 오는 2015년까지 국제해양관광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사업에는 해양마리나 시설, 스포츠 전지훈련장, 골프장, 호텔, 콘도, 펜션 등이, 2015년까지의 2단계 사업에는 세계민속촌, 산악레저월드,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 산지를 활용할 레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화양



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3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천400여명의 소득유발효과를 거두고, 1조3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업기간 3만4천여명의 고용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있다. 당장 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토지 보상에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고 재원 중 일부를 담당할 외자 유치가 있어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수 오션리조트특구와 함께 박람회 개최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여수는 세계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를 떠나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경기자 unipark@

특별기고



손용염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김재복씨 수사로 불이 붙여진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수사는 마침내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이 다양하고 복잡적이지만, 문제되는 사안은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부당한 공적 자금 탕감 등으로 요약된다.

법률에 무지한 사람으로서 수사중인 사건의 사법처리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현안인 현대자동차그룹 문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은 불안정한 것이다.

세계자동차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충성도가 시장성패의 관건인 점을 고려한다면, 정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세계시장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와 마케팅 조직의 와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해외공장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품의 실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협상 대상국에서 신인도가 추락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또 건당 최소한 수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기술 개발과 신차종 개발에는 신속성과 과당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사법처리에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분리 처리 원칙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먼저, 한국 자동차산업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주고 현대자동차 자체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피하는 것

자동차 ‘세계 빅5의 꿈’ 영향

외환위기 이후 현대·기아의 정몽구 회장은 특유의 특성으로 현대·기아의 통합으로 생긴 규모의 경제와 함께 활용에서 얻어진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 필요하다

가격경쟁력의 기회를 당시까지 현대자동차의 고질병이었던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10만 마일 10년 보증’이라는 미국시장에서의 전략은 현대가 만든 자동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5단계 품질검사제도 정착으로 고품질의 자동차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이 적중해 현대자동차의 미국 및 유럽에서의 판매는 증가하였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수출은 계속 늘어났다. 그 결과 회사의 매출액은 물론이고 이익률도 크게 높아졌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제조업생산의 11.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2010년에 국내생산 300만대, 해외생산 300만대의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의 꿈을 실현시켜가는 기업이 되었다.

이런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이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감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4% 정도인데, 그것도 최근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빠르게 증가한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추세가 급격히 반전될 가능성이 높

이 현명할 것이다. 비자금의 부정한 축적 행위는 검찰 조사로 투명하게 밝혀진 만큼 당장은 처벌 유예하고 재발시 가장 처벌이라는 단계적 접근으로 파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처벌유예 등 단계적 접근을

이에 비해 현대자동차가, 부품이나 물류 측면에서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가 할 수 있었던 사업마저 계열사를 세워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경영승계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자동차 친인척에게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불가분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당분간은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은 긍정적인 수반은 없기 때문이다.

각 공적자금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벌인 각종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민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범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른 유사 사건의 재발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日 독도주장은 한국독립 부정”

盧대통령 특별담화 “조용한 외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TV로 생중계된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

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임동욱기자 tuim@



“유적 발굴 체험하세요”

홍동 유진유치원생과 영광 흥농중학교 학생들이 ‘유적 발굴 체험장’에서 현장 학습을 하고 있다. 현장 학습은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된다.

25일 문을 연 전남대 박물관(관장 임영진)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찾은 광주시 북구 문흥동 유진유치원생과 영광 흥농중학교 학생들이 ‘유적 발굴 체험장’에서 현장 학습을 하고 있다. 현장 학습은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씨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홍준표 의원과 오세훈·맹형규 전 의원의 치열한 경쟁속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를 실시했다.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오세훈 후보는 총 1천 967표(41.00%)를 얻어 1천 606표(33.47%)에 그친 맹형규 후보를 따돌렸다. 홍준표 후보는 1천 225표(25.53%)로 3위에 그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물가정보
 http://www.kpi.or.kr

가는 세월은 잡을 수 없어도
 흐르는 물은 잡을 수 있습니다

사판모집